

五・四時期의 「打倒孔家店」論

朴 明 熙

- I. 머리말
- II. 民初의 昏迷政局과 尊孔復古風潮
- III. 「新青年」과 反傳統思想
- IV. 맺음말

I. 머리말

1910年代의 중국정치사상사에서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중국의 전통적 관념과 가치관에 대한 지식인층의 철저하고도 전반적인 부정적 태도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중국문화는 儒家를 중심으로한 階層・階序的인 정치제도(전제주의와 과거제에 의한 문관체제)와 사회제도(가족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阿片戰爭이후 근대 서구문명과 접촉하면서 2千여년동안 지속된 유교사상과 전제군주제에 기반을 둔 전통적 중국문화가 붕괴하게되는데 이로써 파생된 필연적 결과가 바로 전통에 대한 전반적 부정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조는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에 따른 國家存亡의 위기의식과 안으로 辛亥革命이후 袁世凱의 洪憲帝制, 軍閥割據, 南北對立등 정치적 현상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의 복합적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민주공화체제는 빈 껌질에 불과했고 정치・사회・문화등 諸분야에서는 반동적인 復古風潮가 만연되고 있었다. 특히 1916년에 원세개가 제제운동을 추진하고 또한 1917년에도 安徽省督軍 張勳이 淸室의 廢帝 溥儀의 復辟을 기도하므로 이에 동조하는 수구세력들은 공화제는 중국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언론을 유포하며 舊도덕을 선양하는

데 혈안이 되었었다

당시 신지식인들은 내우외환의 혼란된 상황아래 전통문화의 가치에 점차 회의감을 느끼고 동요하여, 결국에는 중국을 새로운 사회로 건설하기 위해 반전통의 기치를 내걸고 전통의 파괴와 서구사상의 도입 및 소개에 전력을 기울이며 중국민중의 각성을 촉구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신문화운동이다. 신문화운동가들은 사회제도·사상·관습을 포함하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조하여 새로운 문화로 대신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유교사상을 중국전통문화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반전통운동은 곧 유교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이들은 유교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로 유가사상은 봉건사회의 산물이고 따라서 현대민주정치의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유교사상은 수천년간 전제군주에 의해 그 통치를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셋째, 완전한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를 건립하려면 반드시 時宜에 맞지않는 유교사상을 타도해야하며, 수천년이래의 전제정치를 타도하려면 완고하고 낙후된 「孔家店」을 타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5·4시기의 반전통운동은 주로 新靑年 雜誌를 중심으로 「민주」와 「과학」을 사상적 준거로하여 봉건도덕을 불식시키려 하였는데, 그 잡지의 입장은 혁신적 내지는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히 급진적이었다. 신청년 잡지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현실개혁적 논리를 주입시키며 광범위하게 젊은 지식층에게 영향을 미친 실력자들은 陳獨秀, 吳虞, 魯迅, 이대교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중국사회의 개조와 신중국건설의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며 진행시킨 신문화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반전통운동은, 대체로 1917년부터 본격화되어 1919년 5·4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고 5·4운동은 다시 신문화운동의 확대·발전의 실천적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5·4시기의 설정에는 두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1915년에서 1923년까지의 견해이다. 이것은 反軍閥과 反帝國主義의 관점에 근거하여 봤을 때 日本이 21個條要求를 원세개정부에 제출하여 중국인의 反日愛國感情을 고취시키는 때로부터 中國國民黨 改組가 일어나는 때까지를 말한다.¹⁾ 또 다른 견해는 1917년부터 1921년까지이다. 신청년 잡지와 北京大學이 중심이 된 신사상과

1) 張玉法, 「民初政局與五四」, 五四研究論文集(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79), pp. 3~4

신문화운동의 관점에 근거하여 1921년이후 5·4운동의 방향이 정치방면으로 흘러 中國共產黨이 창당되며 이후 새로운 정치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견해는 1919년 5·4사건을 계기로 전·후기로 나누어 지는데 전기는 신사상을 청년 및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시기이고 후기는 전통과 보수를 공격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²⁾ 본고는 후자의 견해에 의거하여 시간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상술한 급진적 사상가를 중심으로 신청년 잡지에 나타난 그들의 유교비판 언론을 분석할 것이다.

II.民初의 昏迷政局과 尊孔復古風潮

1. 民初의 政治混亂

1911년 10월에 발생한 신해혁명은 異民族통치에의 반항인 동시에 중국 역사상 2千여년 지속되어온 전제통치에의 반항인 2중적 혁명의 의미를 갖고 있다. 혁명은 결과적으로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건립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中華民國의 정치적 상황은 원세개의 홍헌제제·군벌할거·남북대립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장기적으로 혼돈상태를 초래한 형국이 되었다. 따라서 신해혁명은 혁명이라기보다 오히려 중국역사상의 전통적인 王朝循環概念에 적합하다는 후세의 평가를 받고 있다.³⁾

2) Chou Tse-tsung, *The May Fourth Movement : Intelletual Revolution in Modern China*, Harvard Univ. Press, 1964, p. 1

3) 신해혁명사에 대해서는 근대사 연구의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의 하나이므로 그 성격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루어지는 논점도 매우 다양하다. 평가면에서 신해혁명이 과연 혁명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閔斗基, 「民國革命試論」, 민두기等著, 中國國民革命의 分析的研究 (서울 : 지식산업사, 1985), pp. 7~10, M. B. Rankin, *Early Chinese Revolutionaries : Radical Intellectuals in Shanghai and Chekiang, 1902~1911*, Harvard Univ. Press, 1971, "Preface" 참조), 청말 이래 보수적 紳士層의 自己保身を 위한 단순한 朝代革命 내지는 反滿種族革命으로 파악하는 관점(市古街三, 「鄉紳と辛亥革命」, 1977; 波多野善大, 「辛亥革命への動因」, 歷史學研究 235, 1959), 또는 신해혁명은 혁명이 아니며 反植民地的 反封建的 여러 세력이 부르조아적 요소를 위로부터 포섭함으로써 봉건적 지배의 재편을 꾀하는, 반식민지적 반봉건적 權力的 수립을 꾀하는 정치적 변혁 내지는 부르조아적 개량, 절대주의적 변혁으로 파악하는 관점(橫山英, 「辛亥革命研究序說」, 新歷史研究會, 1977)등 신해혁명의 혁명성에 대체로 회의적인 연구자도 상당수 있다. 金衡鐘, 「辛亥革命의 展開」,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編, 講座中國史 VI (서울 : 지식산업사, 1989) p. 122에서 재인용

신해혁명으로 인한 滿清專制王朝의 붕괴는 急進的인 革命派, 穩健的인 立憲派 그리고 兵權을 장악하고 있는 北洋軍閥官僚의 3대정치세력이 공동 합작한 결과였다.⁴⁾ 그러나 혁명의 주도세력이었던 혁명파는 혁명의 도화선 역할만을 담당했을 뿐이고 입헌파와 북양군벌 관료파가 결탁하여 그 과실은 전부 원세개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는 臨時約法을 폐지하고 대총통의 종신화·세습화를 가능하게하는 대총통선거법을 고쳐 독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혁명의 결과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혁」과는 멀어지게 하였다.

중화민국은 건국 이래 중국역사상에 유례없는 공화정치체제를 시행하였지만,⁵⁾ 당시 사회분위기는 중국에 처음 도입된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던 상황이었으므로 舊官僚·武人·政客들이 권력을 쫓아서 단체를 조직, 대소정당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여 내부분열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혼란한 정국을 조성하였다.⁶⁾

이들 정당은 國民黨과 進歩黨의 양대 정당으로 압축되었으나 여전히 개인의 명예와 당세확장만을 위해 대립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북양군벌의 최고실력자인 원세개의 정치적 지위만 유리하게 해주게 되고, 중국에는 그의 반동정치로 민주주의와 공화정체는 허상만 남게 되었다.

신해혁명후 원세개가 뜻한바대로, 순조롭게 정권을 획득하고 袁氏의 반동정치에 대한 討袁革命軍을 진압하여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지지에 그 원인이 있다. 당시 열강들은 北京政府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중국의 제반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중

4) 李劍農, 最近三十年中國政治史(臺北:臺灣學生書局, 1974), p.249

5) 1912년 2월 개최한 국회에서 각당 의원이 차지한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政黨名	衆議院	參議院	合計
國民黨	269	123	392
進歩黨-共和系	12	55	175
進歩黨-統一系	18	6	24
進歩黨-民主系	16	8	24
衆黨者	147	38	185
黨籍不明者	26	44	70
總計	596	274	870

資料來源: 謝彬, 民國政黨史(臺北:文星書局, 1962), pp. 51~52

6) 張玉法, 「民初政黨的調查分析」, 中國現代史論集 第四輯(臺北:聯經出版事業公司, 1988), pp. 35~37

에서도 英國의 세력이 결정적이었다.⁷⁾ 그러나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영국·프랑스·러시아·독일등 서구 열강이 유럽전선에 전력을 집중하고 중국 경영에 여유가 없게 되자, 일본은 중국에서의 이권을 독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므로⁸⁾, 잠식 약탈등의 방법으로 중국을 병탄하려는 야심을 달성하였다. 일본은 그 해 9월 英日同盟을 구실로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하며 山東半島에 파병, 膠濟鐵路沿邊 및 靑島를 점령하고 독일이 기왕에 획득했던 산둥에서의 경제적·전략적으로 중요한 권익을 계승하고자 하였다.⁹⁾ 또 그 다음해인 1915년 1월 18에는 袁政府에 중국의 隸屬化政策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21箇條에 달하는 요구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였다.¹⁰⁾ 그 후, 교섭과정에서 일부가 수정되어 16箇條 요구가 최종 통첩의 형식으로 통고되므로 원세개는 마침내 5월 9일 일본의 요구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한 것을 기회로 일본은 중국의 북경정부에 여러항목의 거액차관을 주어 일본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타성을 조장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화민국은 건국이후 유례없는 정당정치를 시행하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軍閥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어서 1914년 군인 출신의 대총통 원세개는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폐지했었으며, 또한 1916년과 1917년에는 계속해서 성공하지 않은 帝制運動과 淸室復辟運動이 발생하였다. 즉, 대총통이었

7) 王曾才, 「英國政府對辛亥革命所持的態度」, 中國現代史專題研究報告(三), (臺北: 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 1973), pp. 44

8) 신해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日本의 對華政策은 政府와 軍部 및 民間團體 사이에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다. 일본의 駐華外交官은 1차대전 이전에는 영국의 지휘를 직접 받았으나 군부는 독자행동을 취했었다. 또한 2차혁명때 일본정부는 善後借款형식으로 袁政府를 도와주었으나 일본의 육군과 민간단체는 혁명파를 지원하여 일본의 對華政策의 二重性을 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차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국을 비롯한 다른 열강들을 의식하지 않고 노골적인 對중국 침략야욕을 드러내었다. 林明德, 「民初日本對華政策之探討」,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第四期(下冊), 1974, p. 414, pp. 458~459. 陸銀均, 「袁世凱帝制復活運動背景에 대한 考察」, 숙명여대 논문집 25, p. 144

9) 郭廷以, 中國近代史綱(下) (홍콩: 中文大學出版社, 1980), p. 445 山東權益이란 1987년 山東에서 독일인 예수회 선교사 2명이 중국병사에 의해 살해되었기 때문에 독일이 1898년 무력으로 탈취한 후 99년간 중국에서 租借되던 연젠가는 중국에 반환할 것을 약속했던 곳이다.

10) 靑島합락당시 일본 大隈內閣은 駐華公使 日置益에게 對華交涉案 21條를 교부하여 중국 외교총장 陸徵祥과 북경에서 회의를 하게 하였다. 1915년 2월 22일에서 4월 17일까지 모두 25차에 걸쳐 회의하는 동안 일본은 사전에 방어진다는 구실로 南滿, 山東 및 天津 등지에 군대를 증파했으며 또한 袁大總統의 一身上의 이익보장등을 미끼로 북경정부를 유혹하였다. 金錫琛, 「日本要求事件之解決」, 東方雜誌 第 12卷 6號, pp. 14~15

던 원세개는 공화정체를 83일간이나 취소하고 군주정체로 고쳐 대총통에서 황제를 칭하며 군주입헌을 시행하려 했었다. 또한 계속해서 안휘성 독군인 장훈이 1912년에 퇴위한 淸室 마지막 황제 宣統帝를 옹립하여 복벽을 기도, 張의 부하가 북경을 장악하여 12일간 복벽활동을 진행했었다. 그후 중국 각지의 실질적 권력은 열강과 결탁되어 서로 공개적으로 대항하며 할거하는 군벌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어, 정권의 지방화와 지방정권의 군사화가 가속화되다가 공화정부가 회복되었을 때에는 그 대권이 원세개의 옛 부하인 段祺瑞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 단기서는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군벌로, 군벌의 계파가운데서도 安福系의 거두이다. 이러한 지역적 이익을 수탈하는 북경정권에 반대하기위해 孫中山은 1917년 9월 廣州에서 護法政府를 조직하여 北伐을 도모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중국은 승부를 예상할 수 없는 南北內戰이 일어나 전국은 더욱 더 혼란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단기서세력은 국내를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완전히 일본에 의지하며 공개적으로 국가주권을 일본의 무력적인 지지와 맞바꾸려 하였다. 1918년 대총통 馮國璋·국무총리 단기서는 남방의 護法軍을 정벌하기 위해 급히 차관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로써 중국의 각종 이권은 일본에 넘어가게 되었다.¹¹⁾ 段政府는 차관을 얻기 위해 추호도 주저함이 없이 駐日公使 張宗祥으로 하여금 「欣然同意」의 네글자로 대답하게 하였는데 후에 베르사이유 회담에서 일본이 중국측의 「欣然同意」 문건을 제시하므로¹²⁾, 중국정부가 일본의 山東權益에 대한 계승을 허락했음을 증거하게 하였다. 이것이 당시의 중국민중이 북경정부의 매국행위에 대해 특별히 분노했던 부분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중화민국 건립 이래로 원세개의 반동통치와 반원투쟁 및 단기서 집정기간을 거치면서 중국지식인층에는 열강의 중국침략과 국내정치의 위기가 확대되었으므로, 「外爭主權, 內除國賊」의 슬로건이 제시되자 자연적으로 5·4시기 중국민중의 애국운동의 목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외쟁주

11) 북경정부는 일본의 산둥성에서의 특권을 차관의 조건으로 삼았고 일본은 1차대전이 끝난후 독일의 산둥권익을 계승하여 나아가 청도항과 膠濟線의 군사주둔권과 관리권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膠濟線을 중일양국이 공동관리하며 철도연변의 경비는 중국정부가 조직하나 그 자금은 교계철도측이 순정대본부, 주요역, 순정양성소에 공급하며 모두 일본인을 초빙토록 하였다. 張玉法, 中國現代史 (臺北: 東華書局, 1983), pp. 192~194

12) 楊亮功, 「五四(上)」, 傳記文學 第34卷 5期, p. 130

권은 反帝國主義를 뜻하는 것으로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상실되었던 국가주권을 회수하자는 것으로, 국가주권은 일본이 독일로부터 빼앗은 산동권역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내제국적은 反軍閥을 뜻하는 것으로 일본에 국가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욕되게 하는 조약을 체결한 曹汝霖, 陸宗輿, 章宗祥을 파면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에 의탁하고 있는 군벌들을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2. 政治逆流風潮의 전개

중화민국의 탄생으로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중국의 사회·정치적, 문화적·도덕적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 - 민주공화정체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해외유학이나 근대적 교육을 받은 일부 신지식인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오히려 공화제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지 못한 채, 아직도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군주정체에 대한 의식이나 忠君觀念에 젖어있는 실정이었다. 이것은 곧 전제군주제도가 파괴된 이후 국가적으로 새로운 구심점이 확립되지 않은 까닭이었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당시의 중국사회에서 공화제가 정착할 수 없었던 정치적 상황은 孔敎國敎化運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인의 의식구조에서 절대적으로 기본이 되고 있는 유교를 종교화하여 중국문화의 위기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은 1890년대의 戊戌變法時代의 清末 개혁파들에게까지 소급될 수 있다.¹³⁾ 이러한 동향은 민국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적극성을 띄게 되어 1912년 「孔敎會」가 康有爲·陳煥章·沈曾植·朱祖謀·梁鼎芬·嚴復 등에 의해 「공교를 昌明하고 사회를 구제하는 것」을 중지로 하여 上海에 설립되었다. 강유위는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중국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질서인 유교적 이념이 해이해진 것에서 기인된다고하고, 모든 중국인이 孔敎를 국교로 숭상하고 잘 짜여진 조직으로 사회적·도덕적 결합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안정된 나라로 유지하는 것이 곧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주장하였다.¹⁴⁾ 공교회는 다음 해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홍콩 등지에까지 130개의 지부를 두고 공교회복을 위해 적극적

13) 청말 개혁파의 孔敎論主張은 閔斗基, 「康有爲의 改革運動(1898)과 孔敎」, 歷史教育 第 36輯 참조

14) चेस्ता टान, 中國現代政治思想史, 閔斗基譯 (서울: 지식산업사, 1986), p. 30

으로 활약하였으므로,¹⁵⁾ 淸室遺老, 수구 및 보수파인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尊孔問題는 원세개의 독재권 강화를 가속화하였다. 1913년 강유위 등이 孔子尊崇運動을 선도하는 가운데, 그 해 6월 四川省都督 尹昌衡이 원세개에게 전국적인 범위로 「祀孔典禮」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므로 이에 袁氏는 대총통령으로 「孔聖의 尊崇을 명령하는 글 (通令尊崇孔聖文)」을 공포하여¹⁶⁾, 「不服從을 平等이라 여기고 거리낌없는 것을 자유라 여긴다. 民德이 이같은데 어떻게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中華新報」는 「공자를 제사 지내는 것은 역대의 군주가 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며 「공자를 모신다는 이름아래 민심수습을 위한 도구내지는 帝制復活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2차 혁명의 진압과 함께 언론·출판물에 대한 제한이 극심하던 때이므로 『報紙條例』(1914년 4월 2일 공포) 등이 제정되어 탄압받게 되었다.¹⁷⁾

이에 앞서 1913년 7월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가 天壇憲法草案으로 알려진 中華民國憲法草案을 기초할 때 공교회의 대표가 공교를 헌법에 명문화시키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므로 진보당은 유교를 국교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국민당의 극심한 반대를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가¹⁸⁾ 초안이 10월에 통과될 때는 五族共和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유교를 국교로 한다는 조문은 삭제되고, 「유교가 국가교육의 근본(孔子之道必須是國家教育中人格培養之基礎)」임을 헌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하였다.¹⁹⁾ 또한 원세개는 1913년 11월말 대총통령으로 「尊孔典禮」를 제정하고 다음해 9월에 「祀孔令」을 공포함으로써 공자를 「萬世師表」로 숭앙하며 학교교육을 유교가 중심이 되게 하는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존공복고풍조에 편승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볼 때 원세개가 공교론을 지지한 것은 보수적 전통가치인 유교덕목을 빌려 상하의 신분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15) 梁啓超, 中國近百年學術史 (臺北: 中華書局), p. 29

16) 郭廷以, 中華民國史事日誌 第1冊,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9, p. 98

17) 丸山松幸著, 五・四運動의 思想史, 김정화譯 (서울: 일월서각, 1983), pp. 37~38

18) 黃克武, 「民國初年孔教問題爭論(1912~1917)」, 國立師大歷史學報 第12期, p. 11

19) 郭廷以, 앞의 책, p. 121

이에 앞서 1914년 5월 원세개는 中央官制를 비롯하여 文武職制를 清朝의 체제로 개정, 봉건적 색채가 짙게 하였다.²⁰⁾ 그 해 9월에는 친히 文武百官을 인솔하고 孔廟에서 祀孔祭禮의식을 거행하였고 12월 23일에는 장갑차를 타고 天壇에 가서 역대 황제가 천제를 올리는 형식을 답습하여 祭天儀式을 거행하였고 또 두달 후의 한 장엄한 祭孔의식에서도 유교의 보호자로 자처하기도 하였다.²¹⁾

帝制運動이 표면화된 것은 1915년 8월 楊度 등이 籌安會를 조직하면서 중국에 적합한 國體問題를 연구한다는 명목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주안회는 총통부 헌법고문이며 정치학자이던 미국인 군나우(Dr. F. J. Goodnow)가 원세개의 어용신문 「亞細亞日報」에 논문 「共和와 君主論」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중국이 군주제로 국체를 바꾸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를 이 논문에서 얻게 되었다.²²⁾ 군나우는 논문에서 중국의 실정에는 공화제보다 군주국체가 적합하다는 요지를 주장하였는데, 즉 세계의 국체는 군주제가 민주제보다 훌륭하지만 특히 중국처럼 民智가 낮은 나라에서는 공화제 시행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중국이 독립을 보전하려고 한다면 입헌정치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역사적 관습과 사회경제의 상황 및 열강과의 관계에 입각하여 중국의 입헌은 군주제를 시행해야하며 공화제의 시행은 매우 곤란할 것」이라는 논지를 펴고²³⁾ 國體變更支持를 표명하였으므로, 이것은 제제운동의 추진에 기폭제적인 역할을 한 동시에 帝制派의 강력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안회는 이를 기회로 발기선언에서 먼저 신해혁명 이후 장황하게 공화제를 제정하여 국가의 사정에 적합한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았다

20) 林曾平, 中國近代史 下冊 (湖南人民出版社, 1979), p. 744 1914년 5월 원세개는 新約法을 公布한 후 중앙관제를 개편하여 내각대신에 清代 軍機處와 비슷한 政事堂을 총통부 밑에 설치하고 그 아래 左·右丞과 5局을 설치하는 한편 各省의 民政長을 巡按使로 道の 觀察使를 道伊로 고치도록 하였다. 각성 都督은 上將軍 혹은 將軍으로 개칭했으며 北京에는 將軍府를 개설하고 段祺瑞를 建威上將軍에 임명하여 장군부를 관할토록하였다. 文官職制도 개정하여 三卿(上, 中, 少卿), 三大夫(上, 中, 少大夫), 三士(上, 中, 少士)의 9등급으로 나누었다. 陸銀均, 앞의 논문, p. 138.

21) Y. S. Lin, The Crisis of Chinese Consciousness: Radical Antitraditionalism in the May Fourth Era, 이병주역 (서울: 대광출판사, 1990), p. 38

22) 陶菊隱, 北洋軍閥統治時期史話, 第2冊 (北京: 三聯書店, 1978), p. 112; 白蕉, 袁世凱與 中華民國 (臺北: 1922), p. 176

23) 丸山松幸, 앞의 책, p. 54

고 설명하고 군나우의 논문을 인용한 후, 「나라 밖의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장차 애국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각성을 촉구하였다.²⁴⁾

주안회는 전국에 통지문을 발송하여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는 방법은 민주를 폐지하고 군주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며 민주전제를 폐지하고 군주입헌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本會가 토론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각성에 대표를 파견하여 활발한 제제운동을 전개하였다.²⁵⁾

주안회의 활동과 동시에 당시 稅務督辦이었던 梁士詒가 全國請願聯合會를 조직하여 帝制를 民意에 호소하여 군주입헌체제로 바꾸도록 선전하며 청원활동에 돌입하였다. 전국청원연합회는 국민대표대회를 소집하여 국체문제를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⁶⁾ 1915년 12월 11일 국민대표대회는 군주입헌실시를 주장하며 參議員을 통하여 원세개를 황제로 옹립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원세개는 淸廷에 대한 도의적 부끄러움, 대총통취임시에 행한 공화제유지선서를 스스로 배반해야 하는 信義 문제를 내세워 사양하는 태도를 취하므로,²⁷⁾ 參政院은 民意가 군주제를 원한다고 재추대하자 12월 12일 제위를 승낙하였다. 袁氏는 포고령에서 「오늘날 국민들이 공화제에 염증을 느끼고 군현으로 나아가고 있다」²⁸⁾고 제위승인을 합리화 하였다. 원세개의 제제운동은 民意에 假託하며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1916년을 洪憲元年으로하는 中華帝國이 발족한다는 법령이 공포되고 구체적 전제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에 반대하는 논의와 투쟁이 격렬히 진행되고²⁹⁾ 여기에 열강(특히, 일본)의 중지권고가 가세하여 袁氏를 압박하므로 제제의 취소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므로 1916년 3월 21일 帝制案 취소를, 23일에는 홍헌연호폐지를 또한 27일에는 민국시대의 모든 법령을 계속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그 해 6월 6일 袁氏가 갑자기 병사하므로 임시약법과 국회가 부활되어 제제활동으로 야기된 정치적 불안은

24) 張玉法, 中國現代政治史, 辛勝夏譯 (서울: 고려원, 1991), p. 136

25) 丸山松幸, 앞의 책, p. 54

26) 張玉法, 앞의 책, p. 134

27) 丸山松幸, 앞의 책, p. 57

28) 革命文獻 제 6집 p. 120, 張玉法, 앞의 책, p. 137

29) 윤혜영, 「袁世凱帝制運動의 歷史的 性格」, 東洋史學研究 제 15집, pp. 77~82

비로소 해소되었다. 그러나 제제운동의 실패는 중화민국정치사에 또 다른 특징인 軍閥割據時期로 연결되어 각지역에 난립하고 있던 군벌들이 공개적으로 정권을 빼앗으려 하였으므로 중국은 바야흐로 분열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민국초기에 나타난 또 하나의 반동정치는 1917년 안휘성독군 張勳이 연출했던 淸皇室 廢帝 溥儀의 복벽운동으로 이것은 소수야심가들이 정치적싸움을 이용한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다.

복벽에 대한 논의는 청제퇴위이래 청황실의 舊귀족들이 조직한 宗社黨활동을 중심으로 황위의 유지를 목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복벽운동은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유교적 정치이념으로서의 전제군주 사상의 연장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원세개의 제제운동이 구체적으로 표출될 때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화제보다는 입헌군주제가 중국실정에 적합하다는 논의와 함께 원세개가 復古改制를 단행하였으므로 복벽파들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선통제 부의의 復位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던 것이다.³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원세개는 肅政使 夏壽康의 복벽파에 대한 정벌요구를 받아들여 복벽운동이 「邪說으로써 민중을 현혹시키고 國憲을 문란케 한다」 고하며 「復辟運動懲治令」을 반포, 이를 금지시켰다. (1914. 11. 23)³¹⁾

당시 원세개는 황제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제제운동을 추진시키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호국군의 對袁鬭爭이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므로 1916년 3월 제제부활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袁氏의 死後, 부총통인 黎元洪이 총통직을 승계하고 단기서가 내각을 조직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문제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내분이 점차 확대되므로 (府院之爭), 여원홍은 단기서의 직위를 해임하고 장훈의 군사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장훈은 군대를 이끌고 북경에 들어와 선통제의 정권회수를 주청하며 청제복벽을 단행하므로 (1916. 6. 30)³²⁾, 선통제는 당일에 상유를 발표

30) 청제퇴위 이후 宗社黨의 前民政部尙書肅親王善耆는 大連에서 日本浪人 川島浪速과 결탁하여 淸帝의 복위를 꾀하였고 淸室遺老 勞乃宣은 「正續共和解」를 간행하여 복벽을 주장하였으며 국사관 協修 宋育仁도 여기에 동조하여 복벽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張玉法, 앞의 책, p. 141

31) 白蕉, 앞의 책 pp. 170~176

32) 장훈이 복벽을 주청하는 상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0년이래 학자들은 유럽화에 빠져들고 간민들은 반란을 일으켜 양자가 서로 어울려져 마침내 신해의 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화제가 실시된 후 위 아래가 무리를 지어 뇌물을

1917년을 선통 9년으로 개원하고 滿淸의 官制復活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청제 복벽은 반복복파에 의해 12일만에 실패하고 중국의 정국은 다시 군벌에 의해 혼돈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Ⅲ. 「新青年」과 反傳統思想

중화민국 건국초기에 시행되었던 반동정치와 군벌정치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아래 중국에 전개된 극렬한 침략행위는 중국을 내외외환의 상태에 처하게 함으로써 중국민중의 위기의식은 따라서 팽배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된 상황아래 일부 사명의식을 가진 신지식인들은 중국의 위기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계몽운동을 추진시킨 사람들은 해외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이었다.³³⁾ 그들은 중국을 새로운 사회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민중 개개인이 자각하여 변혁의 主體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精神改造와 倫理革命을 통한 개인의 독립과 개성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新文化運動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현대중국을 건설하는데 장애요소가 되는 전통적으로 중국을 지배해 왔던 유교정신과 그에 입각한 諸 가치관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봉건성을 타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부정하였다. 신문화운동가들은 원세개의 제운동이 진행되며 康有爲를 중심으로한 孔敎國敎化的 복고적인 풍조가 만연하고 있던 당시에, 新青年雜誌를 중심으로 「민주」와 「과학」을 사상적 준거

서로 싸우면서 각각 사사로이 집단을 만들고 탐오하며 흉포하여져 도덕은 문란하여 졌습니다... 臣 등은 시세를 탄식하며 하늘의 禍를 통절하게 느끼면서 밖으로 각국이 방관하고 있는 사실을 살피고 안으로 백성과 나라의 진실된 사정을 살피 공화정체가 우리 백성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臣 등은 반복하여 비밀리 상의하여 공동으로 맹세하여 22개성의 軍民 眞意를 대표하여 황상께서 정권을 회수하기를 삼가 청합니다. 청제복벽운동의 경과에 대해서는 張玉法, 앞의 책 pp. 140~158

- 33) 근대중국의 개혁운동은 유학생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일본, 미국,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었고 이들 세 나라는 각기 문화유형과 정치, 사회적 신조를 유학생들에게 심어주었으므로 학생들이 귀국하여서는 중국문제에 대해 상이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이들 세나라가 중국에 영향을 주는 최대 중심지가 되었다. 蔡元培, 李石曾 등은 프랑스에 胡適, 蔣夢麟 등은 미국에 진독수, 이대교, 梁啓超 등은 일본에 유학하였다가 귀국하여서는 개혁추진세력의 주류를 이루었다. Chow Tse-tsung, 앞의 책, p. 41

로하여 중국전통을 재평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근거로하여 반전통의 가치를 내걸고 전통의 파괴와 서구사상의 도입으로 새로운 중국의 건설을 제창하였는데, 이것이 5·4시기 신문화운동의 사상적 핵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孔敎와 禮 혹은 節概와 같은 전통적 윤리도덕에 반대하여야 하고 과학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技藝와 宗教에 반대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와 과학주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민족적 유산이라거나 구식의 문학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³⁴⁾

1. 신청년 잡지의 창간

신문화운동의 서막을 열은 것은 일본에서 귀국한 陳獨秀가 1915년 9월 上海에서 창간한 「新青年」(初名은 「青年雜誌」였으며 제2권부터 개명하고 청년 La Jeunesse의 프랑스어 副題가 제6권 1호부터 붙어 있음) 잡지에서 비롯되었다.³⁵⁾ 1913년의 2차 혁명이 실패한 이후 중국의 현실정치상황에 환멸을 느낀 진독수는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진력하여 중국의 사회윤리와 이론의 낡은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중국인을 정체시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는 어떤형태의 정치변화라도 중국을 산업화시킬 수 없고, 중국인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으므로 전통적 윤리와 사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진독수는 민중 특히 청년이 각성하고 낡은 사회·문화의 기본적 변화가 있는 뒤에라야 중국은 군벌의 지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새로운 출판물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³⁶⁾ 이러한 관점에서 陳氏는 계몽의 일환으로 신청년 잡지를 발간하여 이를 통해 중국의 젊은 지식인들에게 자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서구의 진보적 사상과 이론을 수용하여 전통적 윤리와 사상에서 벗어날 것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신청년 잡지는 당시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제시하는 관건이 되는 간행물이었으며,

34) 陳獨秀, 「新青年罪案之答辯書」, 新青年 第6卷 1號, p. 15

35) 진독수가 1915년 9월에 상해에서 청년의 사상, 행동을 개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창간한 잡지의 처음 명칭은 「青年雜誌」였는데 당시 상해 기독교 청년회가 발행하는 「上海青年」과 명칭이 비슷하였으므로 이들의 요청에 의해 다음해 발행된 제2권 1기부터 「신청년」으로 제호를 바꾸었다. 任建樹, 陳獨秀傳: 從秀才到總書記(上海: 人民出版社, 1989), p. 98

36) Chow Tse-tsung, 앞의 책, p. 44

또한 젊은 지식층에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蔣夢麟은 『西潮』에서 「『신청년』은 德先生과 賽先生(즉, 민주와 과학)을 고취하여 중국의 新生을 추구하였고... 『신청년』은 신사상을 소개할 때 자연히 낡은 신앙과 낡은 전통에 대하여 맹렬한 공격을 전개하였으며 일부 투고자들은 심지어 “打倒孔家店”을 높이 외쳐댔다. 이러한 격렬한 언론은 일반 독자의 강렬한 반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지만 全 중국의 청년은 보편적으로 지식혁명의 정서에 감응되어 있었다」고³⁷⁾ 당시의 분위기를 회고하였다. 또 郭湛波는 『近五十年中國思想史』에서 「신청년 잡지는 서양사상을 소개하며 중국의 낡은 사상 특히 공자 및 낡은 문학 예교에 대해 공격하여 사상계에 영향이 대단히 크며 50년 이래 중국의 가장 중요한 간행물」이라고 평가하여³⁸⁾ 5·4 신문화운동시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전파의 간행물임을 알 수 있다. 신청년 잡지는 제 1권부터 제 9권까지 월간의 형식으로 每卷 6기로 출판하였으며 이후 계간형식으로 4기를 출판하다가 마지막에는 부정기 형식으로 5기를 출판하였다. 제 1기의 1915년 9월부터 마지막 호인 1926년 7월까지 11년동안 總 63기를 출판하였다.

신청년 발간 초기인 제 1권부터 제 3권까지는 진독수가 단독으로 편집을 담당했으나 1918년 1월 陳氏는 편집위원회를 조직하여 제 4권부터 同人잡지로 바꾸고 陳獨秀·錢玄同·이대교·胡適·劉復(半農)과 沈尹默(高一涵은 이후 가세함) 등이 輪番制로 편집을 담당하였다. 또한 편집체제에도 변화를 주었는데 이는 당시 교육부가 모든 글을 白話體로 통일하자는 정책에 호응하여 완전히 백화문으로 바꾸었다. 필진으로는 서구의 정치·철학을 소개하는 高一涵, 공자학설을 비판하는 吳虞和 易白沙, 서구의 자연과학을 소개하는 王星拱과 馬君武, 사회학을 소개하는 陶履恭(孟和), 어문학에서는 蘇曼殊, 劉半農, 錢玄同, 胡適, 周作人, 魯迅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蔡元培, 吳稚暉등이 있었다.

진독수가 1917년 북경대 교수로 초빙되어가므로³⁹⁾ 따라서 「신청년」의 발

37) 蔣夢麟, 西潮(臺北:傳記文學出版社, 1967), p. 115

38) 郭湛波, 近五十年中國思想史(臺北:龍門書店, 1973), p. 100

39) 新文化運動의 전개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채원배의 북경대학 개혁 노력이다. 蔡氏는 1917년 1월 북경대 총장에 취임한 이래 합리적 근거에서 옹호될 수 있는 이론은 모두 대학에서 자유롭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양한 사상과 경력을 가진 학자들을 망라하게 하여 북경대를 지식의 공개토론장화 하였고 신문화운동의 중심지가 되게 하였다. 高平叔

행지도 북경으로 이전, 북경의 진보적 지식인과 결합되어 초기에는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가 험악하였던 까닭에 정치현안의 비판을 피한다는 양해아래, 중국 사회·문화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사업에 종사하였다. 후에 정치를 평론 할 수 있는 조건, 즉 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러시아 10월혁명등 세계사적인 사건에서 정치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진독수와 이대교는 현실적인 정치성을 띤 간행물 「每週評論」을 1918년 12월 22일에 창간하여 「主張公理, 反對強權」을宗旨로 하여 時局의 부패에 대하여 매주일 신속하고 깊이 있게 날카로운 비평을 가하였다.⁴⁰⁾ 따라서 신청년 잡지와 함께 매주평론 잡지는 이론과 현실적인 면에서 상호 긴밀하게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당시 중국 지식인의 사상적 변화와 중국 국내·외의 급격한 정세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미국학자 셸리반(L. Sullivan)과 솔로몬(R. H. Solomon)은 통계분석방법을 운용하여 신청년 잡지의 내용을 歐美의 사상문화가 주도하는 단계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주도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⁴¹⁾ 첫 번째 단계에서 신청년 잡지의 지식인은 서방이 강성한 원인을 사상문화에 있다고 보고 중국의 쇠락은 전통사상 문화의 부패·무능때문이라고하여 중국이 패망을 면하려면 반드시 구미열강의 사상문화 체계를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여 구미사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또한 중국과 서양의 사상문화가 확연히 상반되고 있어서 병존할 수 없다고 보고 전통적인 사상문화는 새로운 사상문화의 건립에 장애가 되므로 전면적으로 낡은 전통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아래 그들은 改良主義의 입장을 보이는 清末의 中西文化折衷論을 반대하고 全盤的인 西化論으로 대신할 것을 주장하였다.⁴²⁾

신청년 잡지가 전파하려던 새로운 사상은 창간호 「敬告青年」이라는 제목

編, 蔡元培全集 第3卷(北京:中華書局, 1984), pp. 5~6

40) 中共中央黨·思·列·斯著作編譯局研究室編 五四時期期刊紹介 第一集 上冊(北京:三聯書店, 1979), p. 41

41) L. Sullivan and R. H. Solomon, "The Formation of Chinese Communist Ideology in the May Fourth Era: A content Analysis of Hsin Ching Nien", in Charlmers Jonson, ed. Ideology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China, Seattle and London, Univ. of Washington Press, 1973. pp. 128~129; 陳國祥, 新青年與現代中國(臺北:四季出版社, 1979), p. 2 에서 재인용

42) 앞의 책, p. 9

의 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진독수는 이 글에서 중국과 서양문화의 대비방식으로 중국의 고질적인 각종 전통관념을 공격하고, 여섯항목의 새로운 사상을 표명하여 중국현대화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지적하였다. 즉 청년들은 자주적이되 노예적이지 말라, 진보적이되 보수적이지 말라, 진취적이되 퇴隱적이지 말라, 세계적이되 쇄국적이지 말라, 실리적이되 허식적이지 말라, 과학적이되 상상적이지 말라고 충고하였다.⁴³⁾ 또 다른 문장에서 陳氏는 「우리가 사회진화를 꾀하려면 ‘天經地義’·‘自古如斯’의 선입견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되고 반드시 이러한 낡은 관념을 없애면서, 前代·當代의 賢哲들과 우리의 생각을 종합하여 정치적·도덕적·경제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창조하고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수립하여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⁴⁾

진독수를 비롯한 초기의 신청년 잡지 편집자들의 이상적인 중국의 國家像은 자산계급혁명을 통한 영국·프랑스를 모델로 하는 공화국을 건립하는 것으로 민주와 과학적 관념을 근거로 하여 중국을 改造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였다. 여기서 신청년 잡지의 논점을 네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反孔敎(윤리혁명)이다. 이것은 전제봉건의 사상적 기초를 철저히 파괴시키기 위한 것으로 禮敎에 반대하여 이에 기반을 둔 忠·孝와 男·女의 貞操觀念 및 家父長의인 전통적 大家族制度를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신청년 잡지는 婦女解放·自由婚姻·小家庭制度를 제창하고 인격적인 독립과 평등을 주장하였다. 둘째는 文學革命으로 舊文學의 형식을 타파하고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白話文·寫實文學을 제창하여 西洋名著를 번역·소개하였고, 漢字存廢問題까지도 토론범위에 삽입하였다. 셋째는 西歐思潮를 소개하였는데 민주정치·과학정신·자유주의·개인주의를 포함하여 종교에 대한 회의정신·실험철학 및 사회주의등 근대서구사상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또 신청년 잡지는 이들 요소외에도 反宗教·反迷信등을 제창하여 각종의 낡은 사상과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여 정신개조운동으로 중국사회의 현대화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43) 陳獨秀, 「敎告青年」, 新青年 第1卷 1號, p. 9

44) 陳獨秀, 「新青年宣言」, 新青年 第7卷 1號, p. 7

2. 5·4시기 신지식인의 반전통운동

중국의 전통사상인 유교사상에 대한 비판은 이미 청말부터 서구문명의 도입과 그 유용성이 폭넓게 인식되면서 신학문과의 접촉을 경험한 지식인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중국이 진보하지 못한 원인을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문화의 장애 탓으로 돌리고 나아가서 구문화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유교사상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비판과 공격은 5·4 신문화운동시기에 와서야 본격화 되었다. 이것은 5·4 시기에 들어와 지식인들이 각양각종의 서구사상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비판적 안목이 생겼다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신해혁명이후 만연된 복고풍조 즉, 원세개의 제제운동·장훈의 복벽사건 및 강유위를 중심으로한 孔敎國敎化運動등의 존공복고현상의 심화가 보다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⁵⁾

제제운동에 적극적이던 원세개가 1916년 6월 갑자기 사망하자 다시 保皇派의 거두이며 공교회의 회장이던 강유위가 袁氏의 세력을 계승하여 새로 黎元洪總統과 段祺瑞總理에게 편지(「致北京書」(1916. 9. 20))를 보내 유교를 국교로 정하고 그것을 헌법에 명문화시킬 것을 촉구하였다.⁴⁶⁾ 강씨는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중국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질서인 유교적 이념이 해이해진 것에서 기인된다고 하고,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모든 중국인이 공교를 국교로써 숭상하며, 또한 고유한 유교적 덕목을 쌓아야 함에서 비롯된다고 공공연하게 공교의 국교화를 주장하였다. 당시 강유위는 공교를 기독교나 불교로 대치할 수 있는 공자를 敎主로 삼는 擬似宗教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⁴⁷⁾ 또 그는 신해혁명이후의 정치적 무질서를 유교의 쇠퇴때문이라 파악하고 공교를 개혁이념으로 삼아서 국민의 정신적 지주와 중국문화의 주체로 세우고 어지러워진 국가질서를 회복하게 하고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⁴⁸⁾

한나라의 종교는 민족과 합치되고 그 나라의 법의 根底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좋은 정치가 잘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敎主를 갖고 있는 바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관습속에 융해되어있고 우리의 사상

45) 丸山松幸, 앞의 책, pp. 82~83. 任建樹, 앞의 책, pp. 105~107

46) 任建樹, 앞의 책, p. 106

47) 閔斗基, 앞의 논문, p. 133

48) 湯志鈞編, 「復敎育部書」, 康有爲政論集(北京, 1981), p. 864

과 행동의 근본이 되고 있다. 그 교주의 가르침은 法으로 지켜졌고 그의 행위는 規範으로 되어 왔다. 수천년동안 우리 정치의 도덕적 기준은 물론 人心도 風俗도 유교에 그 바탕을 두어 왔는데 또 유교는 융접하고 통합하였던 것이다. 만일 유교를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은 안내자를 잃게 된다. 그들은 길을 잃을 것이고 비참해지고 당황할 것이다.

이와 같이 康氏는 전통적인 孔敎를 민족정신으로하여 정치·문화·풍속을 통하여 예교적 도덕질서를 세우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보수세력의 공교화 추진 움직임은 자연히 반전통의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추구하는 신문화운동가들을 자극하였으며 따라서 신청년 잡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들은 공교와 유가사상등 낡은 관념의 기초를 깨뜨리려는데 맹렬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신청년 잡지의 편집책임자 진독수는 「駁康有爲爲致總統總理書」(1916년 10월)를 발표하여 공교문제 비평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 글에서 陳氏는 공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강유위의 오류를 지적하며 공교는 종교가 아니며 공교와 제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공교를 국교로 한다는 것은 곧 제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격렬한 어조로 반박하였으며 또 같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⁴⁹⁾

中國의 帝制사상은 袁氏의 시험을 거치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康先生은 다시 尊卑를 구별하고 계급을 중시하며, 하늘을 섬기고 임금을 받들어서, 역대 民賊에 이용되어 온 孔敎를 다시 제창한다는 것은 중국인의 '帝制根本思想'이 폐기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다.

같은 시기에 장훈의 복벽운동이 전개되었으므로 원세개의 제제운동 이후 계속되는 존공복고풍조는 중국인에게 제제운동의 재현가능에서 비롯되는 위기감을 심어주게 되었다. 따라서 진독수는 제제와 복벽에 반대하려면 먼저 공교에 대해 공격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하고 신청년 잡지를 통해 유교전반을 반대하는 논문을 집중적으로 게재하여 반전통운동을 신문화운동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시켰다. 「致北京書」에 대한 강유위비평에 이어서 「憲法與孔敎」(1916년 11월)를 발표하여 「孔敎는 이미 魂魄이 빠진 우상이며 과거의 화석이고 옹당

49) 陳獨秀, 「駁康有爲爲致總統總理書」, 新青年 第2卷 2號, p. 145

민주국가의 헌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공교를 종교로 인정한다하더라도 국교화한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고, 서양의 종교전쟁을 볼 때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커다란 소요와 좋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국교화할 수 없고, 공교와 헌법은 병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서양의 예를 들어 논박하였다. 또 같은 글에서 「공교문제란 헌법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생활 및 윤리사상의 근본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⁵⁰⁾ 계속 공교문제를 평론하였다.

이외에도 진독수는 유교가 사상의 자유에 장애가 되고 진보에 장애물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분명하게 중국의 전통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관념과 가치판단을 수용하여 낡은 사회사상을 개조하여 중국이 낡은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게 할 것을 고취하였다. 그러므로 진독수는 고유전통을 반대하고 민주와 과학을 제창하는 까닭은 중국이 현대세계에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서양식 입헌공화국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적체제보다는 민주주의적 사고나 태도를 가르키는 것이며 人權平等과 같은 사상적 측면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과학이라는 것도 자연과학이나 기술적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적정신, 즉 합리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진독수는 중국의 고유전통중 유교의 三綱이 노예의 도덕임으로 현대생활에 부적합하고, 또 공자의 道는 萬世에 변함이 없는 도덕기준이 아니고 단지 봉건시대의 교조일 뿐이어서 서방의 민주·과학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공격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공자사상을 봉건시대·宗法社會의 산물로 인식하여 「孔子의 道는… 千年前の 종법시대, 봉건시대에 있어서 단지 公卿士大夫의 人倫과 日用에만 쓰이고 庶人들에게는 쓰이지도 않던 것인데 더욱이 수천년 후인 오늘날의 共和時代, 국가시대에 어찌 행해질 수가 있겠는가」⁵¹⁾ 라고 하면서 유교가 현대 중국의 생존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또 유교의 三綱계급제도는 현대의 자유 평등의 사회와 정치제도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 비판하였다. 그러므로 陳氏는 또 다른 논문에서 유교를 배척해야 될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⁵²⁾

50) 陳獨秀, 「憲法與孔教」, 新青年 第2卷 3號, p. 345

51) 陳獨秀, 「孔子之道與現代生活」, 新青年 第2卷 4號, p. 362

유가의 三綱이라는 것은 우리의 倫理와 政治에 있어서의 大原으로서 三綱의 근본적인 뜻인 바로 계급제도 그것이다. 이른바 名敎라든지 禮敎라는 것은 모두 尊卑를 나누고 貴賤을 밝히려는 것들이다. 近世 西洋의 도덕정치는 自由 평등의 說로서 大原을 삼고 있는데 계급제도와는 극히 상반된 것이다... 무릇 立憲共和制는 독립, 평등, 자유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綱常계급제도와는 절대 相容할 수 없는 것으로 어느 하나를 존재시키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는 없애야 한다. 정치에서 專制를 부정하면서 가족사회에서는 여전히 舊有의 특권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법률상의 권리·평등, 경제적 독립생산의 원칙은 파괴되니 어찌 그것을 행할 여지가 있겠는가

이외에도 진독수는 男女差別과 女性束縛과 같은 유교도덕을 기초로한 과거의 가족제도는 전통의 낡은 제도를 구성하는 근본이라 지적하고, 이러한 관습은 봉건시대의 역사적산물이므로 현대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여, 구제도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東西民族根本思想之差異」(1915. 12)에서 중국민족은 가족이 중심이나 서양민족은 개인이 중심임을 지적하며 그 차이를 논하였다.⁵³⁾

서양민족은 옛부터 지금까지 철두철미 개인주의 민족이다. 이른바 윤리·도덕·정치·법률·사회가 향하는 바 국가의 방향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행복을 옹호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사상 언론의 자유는 개성의 발전을 위하여 있다... 동양민족은 유목사회로부터 종법사회로 되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또 酋長政治로부터 봉건정치로 되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종법사회는 가족을 본위로 하여 개인의 권리는 없고 가족은 가장의 명령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서양은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바탕으로 개성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는데 비하여 동양은 유교적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개인은 가정과 사회에 속박되어 개성의 독립과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 적응, 생존하기 위해서 예속적 지위에서 탈피하고 독립 자주의

52) 陳獨秀, 「吾人最後之覺悟」, 新青年 第1卷 6號, p. 564

53) 陳獨秀에 의하면 서양민족은 전쟁을 본위로 하는데 반하여 동양민족은 안식을 위주로 하고, 서양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동양은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서양이 법치와 실리를 위주로 하는 반면 동양은 감정과 허식을 위주로 하고 있어 서로 상이하고, 서양문명이 동양문명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고 동양의 열등성과 서양의 우수성을 二分法的으로 대비하였다. 陳獨秀, 「東西民族根本思想之差異」, 新青年 第1卷 4號, p. 352

인격을 확립해야 하므로 자유 평등과 융화될 수 없는 공교는 철저히 비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千여년동안 전통중국의 정신적 지주이며 자주 독립의 인격을 속박하여 노예도덕을 강요한 유교윤리의 우상을 파괴할 것을 주장하였다.⁵⁴⁾

파괴, 파괴하라! 偶像을 파괴하라! 虛偽의 우상을 파괴하라! 우리들의 신앙은 마땅히 진실하고 합리적인 것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종교상 정치상 도덕상으로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허영과 기만의 불합리한 신앙은 모두 우상이다. 마땅히 파괴해야 한다! 이러한 허위의 우상이 파괴되지 않으면 우주간에 실재의 진리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철저한 신앙은 영원히 하나로 합칠 수 없게 된다.

당시 가족제도의 지주인 유교도덕을 맹렬하게 공격·비판한 인물로 진독수 이외에 吳虞도 대표적으로, 이들은 신문화운동시기 유교비판의 가장 유력한 健壯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사상계의 청소부」, 「한 손으로 孔家店를 타도한 四川省의 노영웅」⁵⁵⁾의 칭호를 받고 있는 오우는 「家族制度爲專制主義之根據論」(1917년 2월)을 발표하며 신랄하게 유교도덕을 비판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에 유학하며 비교법학을 공부한 그는 서양의 법률제도와 함께 Montesquieu와 J. S. Mill을 공부하여⁵⁶⁾ 이에 영향을 받아,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적·사회적 제도를 비판 평가할 참고기준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우는 중국의 전통사회의 고질이었던 전제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에 유교를 비판하였는데, 이 전제정치의 근원이 바로 가족제도에 있고 그 가족제도의 근간이 「孝悌」의 개념이라고 인식하여 유교사상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난하였다. 그에 의하면 구라파가 중법사회에서 벗어난지 오래이나 중국은 중법사회속에 정채되어 군국사회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가족제도의 장애타으로 보고, 유교사상에서의 효제는 모든 행위의 근본이므로 事父를 확대하여 事君事長에 이르게 되면 立身揚名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효

54) 陳獨秀, 「偶像破壞論」, 新青年 第 5卷 2號, p. 107

55) 胡適은 「吳虞文錄」의 序文을 지어 吳虞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는데, 그는 오우를 중국 사상계의 청소부에 비유하면서 유교에 의해 야기된 舊사상의 破해를 공격한 오우를 「四川省 隻手打孔家店的英雄」으로 칭송하였다. 胡適, 「吳虞文錄序」, 胡適文存 第 1集 卷4, p. 794. 戚洪根, 「中國新文化運動期的 儒教批判」, 梨大史苑 第 22, 23合輯, p. 7

56) 吳虞, 「진독수에게 보내는 通信」, 新青年 第 2卷 5號

의 개념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전제정치와 유착하게 된다는 것으로, 그러므로 효제는 가족제도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전제정치를 만들어 내는 근원이라고 인식하여 그 해독은 홍수, 맹수보다 적지 않다고 예리한 비난을 가하게 되었다.⁵⁷⁾

공자의 학설을 상세히 고찰해 보면 「孝」를 백행의 근본으로 하며 그래서 그 가르침은 孝를 기점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 「教」라는 글자가 孝를 바탕으로 한 것은 그것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관직에 나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孝인 것이며 조정에 出仕하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孝이다. 아버지를 섬기고 임금을 섬겨야만 입신양명할 수 있다. 아버지를 섬기고 임금을 섬기고 웃어른을 섬기는 것까지 모두 忠順을 가진다면 이름을 날리고 봉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孝의 범위는 모든 것을 포함했고 가족제도와 전제정치를 굳게 유착시키게 되었다... 유가는 孝悌로써 2千年이래의 전제정치와 가족제도를 연결하는 근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철칙으로 만들었다... 그 流毒은 洪水猛獸보다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효제를 가족윤리의 근본이며 역대의 전제정치와 결합한 낡은 도덕의 전형이라고 유교공격에 포문을 열었던 오우는 이어서 이른바 예교비판을 통해 유교적 정치철학과 제도·법률·풍속의 근원이 되는 보다 핵심적인 교리로서의 禮에 관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언론은 신청년에 발표된 「讀荀子書後(제 3권 1호, 1917. 3)」, 「消極革命之老莊(제 3권 2호, 1917. 4)」, 「禮論(제 3권 3호, 1917. 5)」, 「儒家主張階級制度之害(제 3권 4호, 1917. 6)」, 「儒家大同之義本於老子說(제 3권 5호, 1917. 7)」 등의 논문들에서 2千年이래의 자유 평등을 억압한 尊貴長上의 엄격한 계급제도가 유교사상에 연유하고 그 해악을 후세에 남기게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교와 가족제도등의 전제정치의 기초를 타파해야만 현재의 정치개혁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魯迅이 유교에 바탕을 둔 예교와 가족제도를 비난하고 전통문화를 공격하는 첫 번째 작품인 「狂人日記」(1918년 5월)를 신청년 잡지에 발표하자, 오우는 그 다음해에 예교에 대한 최후의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吃人과 禮教」

57) 丸山松幸, 앞의 책, p. 82

(1919년 11월)를 발표하여 유교의 핵심사상으로 요약되는 「仁義道德」의 裏面에 감추어져있는 「吃人」의 실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현대의 우리는 君主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며 聖典을 위하여 태어난 것도 아니고 綱常禮教를 위하여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하거든 文節公이 무엇이든 忠節公이 무엇이든 말인가」⁵⁸⁾ 라고 중국의 전통사상을 공격하였다.

「중국의 고르끼」로 불리우는 노신⁵⁹⁾은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가장 맹렬하게 공격을 가하는 신문화운동가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예리함, 신랄함, 간결함의 필체로 풍자성의 단편소설과 잡문형식으로 유교윤리에 대해 공격하고, 나아가서 중국의 전통문화를 비롯하여 중국인의 전통적 성격까지 낱알이 공격하며 유교가 중국역사에 조성한 미신과 전통예교의 독해를 고발하였다. 노신은 「광인일기」에서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미치광이 남자의 일기형식을 빌려 신해혁명에 의해 민주공화국이 건설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 도덕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중국사회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食人) 암흑사회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중국 사천년의 역사, 곧 사천년의 食人역사를 가진 나(我)를 봉건역사에 비유하면서 식인인 나를 철저히 파괴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전통도덕의 비인간성을 청년들에게 호소하여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광인일기」는 舊중국사회의 계급대립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당시 신문화운동가들의 유교비판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가 역사를 펴놓고 조사해 보니 이 역사에는 모든 페이지마다 「仁義道德」 몇 글자만이 쓰여져 있었다. 어차피 나는 잠도 오지 않았으므로 밤새 자세히 들여다 보니 글자들 틈새에서 겨우 글자가 보여졌는데 책 전체에 두 글자만이 씌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吃人」이었다」⁶⁰⁾

수천년이래의 중국역사에서 유교가 제창한 「인의도덕」의 意義는 곧 「吃人」이라고 주장하며 노신은 이 작품을 통해 중국사회를 깨트려 온 유교를 철저히 비판하였다. 중국문명이라는 것은 부자가 즐기도록 안배된 인육의 향연일 뿐이며 중국이라는 공간은 이를 위해 안배된 부역일 뿐이고 흉포한 사람의

58) 吳虞, 「吃人與禮教」, 新青年 第 6卷 6號, p. 657

59) 체스타 탄, 앞의 책, p. 47

60) 魯迅, 「狂人日記」, 新青年 第 4卷 5號, p. 483

어리석은 환호가 비참한 약자를 슬프게 할 뿐이라고 유교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중국사회체제를 공격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중국의 모든 역사는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즉 노예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시대와 확고하게 노예가 된 시기로 이것이 바로 유교의 이른바 「一治一亂」의 순환이라고 노신은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사회에는 엄격한 등급제가 존재하고 있어서 중국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 착취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착취하며 사람에 의해 모멸당하고 모멸한다고 보았다.⁶¹⁾

그 외에도 노신은 초기의 단편소설들 가운데 신해혁명전야의 농촌에서 소재를 취재하여 침체된 당시의 사회현상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孔乙己」(신청년 제6권 4호)는 몰락한 독서인(舊지식인)이 사회의 막다른 일각에서 자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내용을 묘사하며, 전통적 독서인은 본질적인 무능과 과거시험에서의 성공없이 생존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임을 폭로하였다. 「藥」(신청년 제6권 5호)은 폐병을 앓는 어린이를 묘사하였는데 치료를 위해서 그의 부모가 망나니를 매수하여 목 잘린 젊은 혁명가의 피를 묻힌 인형만두를 먹여 병을 고치려 했으나 결국 소년이 죽는다는 비극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신은 이 작품에서 측면적인 방법으로 인민을 위해 희생한 혁명가를 이용하여 사회로부터 얻는 것은 냉담과 회의, 조소뿐이었다고 고발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중국인의 무지를 폭로하였던 것이다. 「頭髮的故事」에서 작가는 여자의 머리깎는 문제를 빌려 한 세속인의 입을 통해 혁명가의 비애를 표출하고 중국사회의 타성을 공격하였는데 혁명전에는 혁명가를 냉소, 질책, 박해, 곤궁에 빠지게 했으나 혁명 후에는 또 신속하게 혁명가의 공적을 잊어버리는 중국인의 병폐를 개탄하였다. 「阿Q正傳」에서 작가는 「阿Q」라는 사람을 모델로 하여 전통적인 중국인의 성격을 묘사하였다. 무지하고 유치한 현실을 무시하는 자아만족, 허구의 도덕관념을 나타내고 「阿Q」의 묘사에서 중국인의 무지, 노예성, 나약함, 비굴함 그리고 귀찮은 것을 싫어하며 원칙이 없이 파도에 따라 흘러가는 일반적인 속성을 날카롭게 묘사하였다.⁶²⁾

노신은 위와 같은 일련의 소설을 통해 보수와 미신과 유교에 근거한 불합리한 윤리도덕을 공격하였고, 1918년 7월에는 「我之節烈觀」을 발표하여 節烈

61) 魯迅, 「燈下漫筆」, 魯迅全集 제1권(북경: 인민출판사, 1957), pp. 309~316

62) Y. S. Lin, 앞의 책, p. 159

의 도덕성 문제와 多妻主義 남자의 節烈표창 자격문제를 제기하며 전통적 덕목인 열녀, 정절의 허구성과 정치적 의도를 폭로하였다. 노신은 전통 때문에 여자는 수절해야 하고 남자는 多妻를 취할 수 있는 현재의 사회는 비인간적인 기형적 도덕이 만들어낸 것으로, 반드시 유교권위를 타파하여 자주 평등 독립의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⁶³⁾

1916년 4월 일본유학에서 귀국한 이대교는 귀국직후부터 신청년 잡지가 주도하는 신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강렬한 애국열정을 품고 반제·반봉건, 민주·자유를 주장하며 봉건구도덕에 예리한 비판을 가하였다. 이대교는 唯物史觀의 관점에서 사회의식 및 그 형태를 분석하여 유교사상 즉 봉건구도덕을 공격한 첫 번째 신문화운동가로 꼽히는데, 李氏는 1920년 1월에 발표한 논문 「從經濟學上解釋中國近代思想變動的原因」에서 「중국의 모든 풍속, 예교, 政法, 倫理는 모두 대가족제도에 기초하고 있고 공자주의는 그 모든 것의 결정체이다. 대가족제도는 파괴될 운명에 돌입해 있고 공자주의도 파괴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한 시대의 경제적인 변동은 곧 사상변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중국의 대가족제도는 전통적으로 농업사회의 경제적인 分業互助의 요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대가족제도는 중국 2천여년이래의 사회형태의 기본적인 구조이며 모든 정치, 법도, 윤리, 도덕, 학술, 사상, 풍속, 습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李氏에 의하면 공자학설은 대가족제도의 尊長정신에 따라 개성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어 웃어른을 공경하는 윤리로 발전하였고, 따라서 개성을 희생하는 첫걸음은 「孝」이며 여기서 발전된 것이 「忠」으로 군주전제제도는 완전히 父權中心의 대가족제도의 발달체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順」·「從」·「貞節」등의 윤리가 여자를 속박하여 여자를 완전히 남자에게 희생되게 하였는데 공자의 이러한 희생적인 의무도덕이 2천여년의 중국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2천여년동안 중국의 농업사회가 변화되지 않았던 까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구미 자본주의의 세력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전통경제는 외국의 기계공업의 압력을 막아내지 못하여 중국의 농업사회는 동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요로 새로운 공상경제가 구축되는 시점

63) 魯迅, 「我之節烈觀」, 新青年 第 5卷 2號, pp. 109~118

에서 중국은 새로운 사회건설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때 먼저 붕괴되는 것이 대가족제도이고 따라서 공자주의도 붕괴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인식하여, 이 대교는 신문화운동의 원인을 경제변동의 요인에서 찾았다. 그러므로 공자학설이 과거의 전유물이 되는 것은 사회경제의 변동아래 옮길 수 없는 필연적인 추세라고 설명하였다.⁶⁴⁾ 이와같이 중국의 역사발전을 계급적 대립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경제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봉건적 경제관계에 의존하던 봉건 구도덕의 소멸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과 함께 이미 발표된 「物質變動與道德變動」, 「我的馬克思主義觀」 등은 이대교가 유물사관의 관점에서 중국문제를 분석하고 당시 중국사회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볼 때 신청년 잡지가 유교적인 전통문화를 공격, 비판하는 신문화운동적인 성격에서 새로운 사상의 관점 즉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신청년 잡지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IV. 맺음말

일반적으로 5·4시기는 중국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적인 시점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중국의 정치·문화·사회등 諸방면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기운이 일어나서 과거의 전통적 가치관·윤리관 및 의식구조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조를 모색하게 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1912년에 중화민국이 건립되어 민주공화정을 시행한 이래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여기에 편승하여 제제부활기도와 복벽운동 및 일부 보수파 정객들이 유교의 도덕관념에 의지하여 그들이 통치하는 전체체제와 기구의 합법화를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신지식인을 중심으로하여 유교로 일관하는 낡은 관념의 기초를 깨뜨리고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모색하는 신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신문화운동의 선구자인 진독수는 「창조를 무너뜨린 공화혁명이라 세 번이나 혁명을 거쳤으면서도 암흑시대가

64) 이대교, 「從經濟學上解釋中國近代思想變動的原因」, 新青年 第7卷 2號, pp. 209~216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정신세계에 뿌리박고 있는 윤리·도덕·문학·예술등이 혁명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치사회를 암흑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도덕혁명을 위한 유교타도를 통해서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여⁶⁵⁾ 사상적 혁신은 진정한 정치혁명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중국의 전통문화는 2千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정치 및 권력과 결합하여 지배이념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로의 전환이 순탄치 못했었다. 따라서 진독수는 사상개혁을 추진하고 중국사회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민중의 정치적 자각을 저해하고 있는 유교주의의 가치관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교비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5·4시기 신문화 운동가들은 한 시대에는 한 시대의 사상이 있다고 하는 進化論的 사고에서 출발, 이의 변화개념을 자연과 사회의 보편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진화론을 유교비판의 출발점으로 삼아 공자의 예교도덕이 현대생활에 부적합하고 중국 현대화를 저해하는 화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교적 권위를 완전히 거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또한 전반적이고 철저한 서양화가 국가부강의 유일한 첩경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의 일념에서 일체의 전통과괴를 모색하게 되어 중국의 도덕문화에 적극적인 파괴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⁶⁶⁾ 그러므로 신청년 잡지가 주도하며 진행하였던 반전통운동은 대체적으로 볼 때 결코 그 목적이 아니고 수단일 뿐이며 그 궁극적 목표는 전면적으로 서구문화사상을 도입하여 구미를 모델로하여 중국을 개혁하려 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당시 신청년 잡지를 통해서 반전통·반유교운동의 선봉적인 역할을 하였던 진독수는 孔敎와 帝制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폭로하여 당시 국회와 내각에서 추진중이던 헌법토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존공복조 풍조에 대하여 철저한 비판을 가하였던 것이다.

신문화운동을 담당한 주력들의 공통된 동기는 민족의 생존과 독립을 지향하는 내외위환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의 실패로부터 전통문화의 폐단을 보았고 서구 문명과의 조우이래 시도되었던 개혁과 혁명으로도 이루지 못했던 중국의 부강과 자유 독립 평등은 각 개인의 인격적 독립을 존중하고 진취적인 특색을 갖는 서구문화를 통해 치유해야 된다고 인식하였다. 그들

65) 陳獨秀, 文學革命論, 新青年 第2卷 6號, p. 564

66) 李國祁, 「甲午戰後至抗戰以前我國民族主義的發展」, 中華民國建國史討論集 第二冊, p. 18

은 전통비판에 대한 代案으로 단순한 서구화가 아니라 신문화 창조를 위한 전면적인 수용을 표방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의 배경은 민족주의였다. 그러나 신지식인들은 전통의 파괴와 서구문화의 도입을 주장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사상과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중국현실에 대입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문화운동이 반전통의 가치를 내걸고 유교사상에 일대 타격을 가하는 한편 중국의 학생·젊은 지식층에 사상적 각성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서구의 신사상을 수용하는데 그쳤다고 비판받고 있다.⁶⁷⁾ 이러한 西歐에의 憧憬은 베르사이유회담에서 오히려 서구에의 실망과 否定으로 표현되어 서구의 자본주의 문명과 제국주의에 실망하게 된 일부 지식인이 서구문명에 대한 낙관적 태도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문명을 비판하는 급진적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5·4운동이후 반제·반봉건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화됨과 더불어 신문화운동의 방향이 문화운동에서 급진적 정치운동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참여자들의 좌·우이데올로기와 현실문제에 대한 차이가 노정되어 결국에는 정치적·사상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67) 李炳柱, 「20세기 초반 中國知識人の 이념적 分岐와 실천문제: 文化理念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第48號, p. 245